

##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박재정 | 충남대학교 교수

세계화시대 탈주권의 글로벌거버넌스가 전개되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세계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선거, 지방정당,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의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민주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시대 지방정부는 지방이 주체가 되고 단위가 되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으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부정적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반영, 조정, 통합함으로써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 기관에 균등한 권한배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법률상 범위와 한계 등의 권한의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양 기관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